



장애인 취업

장애가 있다고 해서 성취감을 주는 일을 추구하는 데 제한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구직을 계획하고 조정을 모색하던 건강 보험 권리를 보호하던 취업과 더불어 최근 입게 된 손상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마비 환자들은 보람 있는 직업 생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Q: 취직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크리스토퍼 & 다나 리브 재단은 최근 ‘장애인 취업(*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을 출간했습니다. 이 출간물은 손상을 입은 후 직장을 찾거나 기존 직장으로 복귀하는 방법에 대한 종합 안내서입니다. 사본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소책자를 받아보시려면

본 재단의 정보 전문가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책자는 고용이 생활 보조금에 미치는 영향, 업무 관련 문제를 지원하는 보조 기술 사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 설명과 함께 인터뷰를 다루는 방법과 장애와 더불어 사는 삶의 고유한 강점을 포용하는 방법에 관한 조언도 제공합니다. 이 소책자를 통해 목표를 규정하고 교육 또는 훈련의 격차를 확인하여, 구직을 향한 성공의 길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Q: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습니까?

우선 지역 직업 재활 기관에 전화하세요. 미국 교육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은 모든 주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직업 상담, 현장 연수, 교육, 취업 알선 등 장애인에게 다양한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티켓 투 워크(Ticket to Work) 및 자활 달성 계획(PASS, Plan to Achieve Self-Support)은 취업을 원하는 개인이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방 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1999년에 설립된 티켓 투 워크는 사회 보장 장애 보험에 가입된 생활 보조금을 받는 개인에게 무료 직업 재활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창업이든 시간제 근무든 목표한 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비영리 단체 또는 자립 생활 센터와 같은 지역 제공 기관을 선택했습니다. 티켓 투 워크를 통한 지원 서비스의 예로는 직업 상담, 인터뷰 코칭, 직업 체험, 수업료 및 교통 지원이 있습니다. 자활 달성 계획(PAS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업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활 보조금(SSI) 소득을 따로 떼어 둡니다. 일반 생활 보조금 소득 규칙과 달리 자활 달성 계획 관련 업무 목표를 위해 따로 적립된 소득은 생활 보조금 혜택을 줄이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추가 교육 또는 훈련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마비를 입기 전에 재직했던 직장으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손상 후 자신에게 주어진 옵션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사직하거나 장애가 극복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빨리 회사 인사과에 연락하여 단기 장애 또는 장기 장애에 대한 적격성을 파악합니다. (간병인은 미국 가족 및 의료 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해당 고용주의 적격 직원이 건강 보험

보장을 잃지 않고 특정 가족 및 의료상의 이유로 복직을 보장하는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활 및 회복이 진행된다면 개인은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웨스트버지니아 대학(West Virginia University)에 기반을 두고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가 자금을 지원하는 직업 조정 네트워크(JAN, Job Accommodation Network)는 장애가 있는 직원과 고용주 모두를 위한 매우 유용하며 신뢰받는 무료 자원입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는 직원과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장애별 및 조정별로 구성)를 통해 직업 조정 네트워크(JAN)는 손상 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 내에서 자신의 기술을 다른 역할로 옮겨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척수 손상을 입은 지붕 수리 기술자의 경우, 더 이상 기존 일을 육체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지만, 대신 드론을 사용하여 자신의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고 고객에게 견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일을 하면 건강 보험과 개인 간병 보장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관련 영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연방 건강 보험 및 장애 수당을 이용하는 권리는 척수 손상을 입었거나 다른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안전망일 수 있습니다. 장애가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두려움은 구직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티켓 투 워크 및 자활 달성 계획과 제휴하는 직업 재활 상담사 및 제공 기관은 직업이 수당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리브 재단에서는 취업을 위해 장애 수당을 포기하는 것이 자신의 특정 상황에 적합한 옵션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전 고용 수당 분석가(pre-employment benefits analyst)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재단의 정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대학 학위가 없으며 마비 수준으로 인해 몸을 쓰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취업할 수 있을까요?

예. 직업 재활 서비스와 티켓 투 워크(Ticket to Work) 및 자활 달성 계획(PASS)과 같은 연방 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새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주별 및 연방 고용 당국은 장애인을 위해 신속하고 비경쟁적인 고용 절차를 제공합니다. 대학 학위가 필요한 직업이 있지만, 많은 직업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공무원 GS-2 등급의 연방 정부 일자리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대부분의 사무직 및 보조직은 3개월의 일반 업무 경험만 있으면 됩니다. 지역 직업 재활 기관에 연락하여 국가직에 지원하는 방법과 해당 지원 장소를 알아보세요. 또는 USAJOBS.gov에 접속하여 연방 정부 일자리 목록을 검색하고 스케줄 A(Schedule A) 고용 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 취업은 싫지만 바쁘게 지내고는 싶습니다. 어떤 옵션을 고려해야 할까요?

자원봉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관대한 행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있어 기술과 재능을 세상과 나누는 일은 시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립감과 우울감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손상을 입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떠올려 가능성 있는 활동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해 보세요. 열정적인 축구 선수였다면 청소년팀의 코치를 맡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경우 시각 장애인을 돕는 단체를 위해 책과 뉴스 기사를 녹음하는 일을 고려해 보세요. 지역 푸드뱅크에 전화하여 식사를 위한 봉사자가 필요한지 또는 고객이 도착했을 때 맞이할 사람이 필요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재활 센터에서 자원봉사하거나 리브 재단에서 동료 멘토로 활동하여 최근에 척수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www.ChristopherReeve.org/peer).

출처: 크리스토퍼 & 다나 리브 재단의 '장애인 취업' 소책자, 미국 직업 재활 최고 위원회(Council of State Administrator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미국 가족 및 의료 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직업 조정 네트워크(Job Accommodation Network), USAJOBS

